

高麗詩歌, 그 違和의 詩

尹 榮 玉

I.

詩歌는 예로부터 “言志”라는 詩와 “永言”이라는 歌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詩歌는 곧 뜻과 정의 한 表出形態이다. 이러한 뜻과 정의, 곧 詩의 內容은 經驗世界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經驗世界는 詩人이 呼吸하고 있는 社會·文化의 諸現象이요, 여기서 觸發되어지는 強力한 情緒는 詩歌의 形態를 빌어 表出될 것이다. 이 社會·文化의 諸現象 즉 對象世界가 詩人의 意志와 所望에 一致되어 질 때 詩人은 和合의 滿足感을 느껴 讚揚·讚美의 詩歌를 노래할 것이지만, 詩人의 意志와 所望에 不一致되어 질 때 詩人은 對象世界에 違和感을 느껴 悲嘆과 絶望을 多樣한 形態로 노래할 것이다.

筆者는 高麗詩歌 가운데서도 이 違和를 노래한 詩歌들을 살펴서 이들이 우리 詩歌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位置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對象世界와 自我와의 乖離 곧 違和에서 觸發된 詩歌들은 이미 古代에서부터 있어 온 것 같다.

古朝鮮時代에 白首狂夫의 妻가 물렸다는 《公無渡河歌》에서부터 그런 根據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노래,

公無渡河 公寬渡河
墮河而死 公將奈何

의 첫 句 “公無渡河”에서 그 妻를 뒤에 두고 물을 건너야만 하는 夫와 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妻는 그네들 夫妻의 違和이기 보다는 對象世界와 그네들과의 違和를 더욱 強力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건너다가 물에 빠-

저 죽으니 其夫의 죽음을 눈앞에서 맞이한 其妻도 함께 “投河而死”하고 말았던 것이다.

高句麗의 瑠璃王도 거의 비슷한 狀況에서 《黃鳥歌》를 노래 부른 것 같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의 “念我之獨 誰其與歸”에서 黃鳥의 “相依”에 비해, 宮闈에는 禾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는 孤獨을 것섭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違和感에 가득 차 있다. 더불어 돌아 갈 자 없는 것은 “雌雄相依”하는 黃鳥로써 對照적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對象世界의 和合에 對照되어 나타나는 人間의 違和感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것이 人間으로 하여금 詩를 享有하게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한다.

新羅의 《勿稽子歌》《賈兮歌》《天官怨詞》《鸚鵡歌》《木州歌》 등에서도 위와 같은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鸚鵡歌》에 대한 『三國遺事』의 記錄을 보면, 짝 잃은 앵무새의 슬픔이 매우 슬피 우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거울을 앞에 걸어 그 거울 속에 그 슬픔을 되비추어 그림자의 짝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 슬픔은 그것이 자기의 그림자임을 알고 더욱 슬피 우는 것을 보고 興德王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記錄을 볼 때, 짝 잃고 슬피 우는 앵무새가 바로 王 自身の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王妃를 잃고 난 뒤에 唐에서 보낸 앵무새가 짝을 잃고 슬피 울다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王妃 잃은 王 自身の 슬픔과 思慕의 情을 앵무새에 寄托하여 노래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때의 乖離는 對象世界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運命에 의한 것인가 한다. 《木州歌》도 後母의 讒에 感해 自己를 逐出한 悲境스런 父情이 母情에의 回應을 高調하고 나아가 失母에의 薄福을 自怨한 것으로 自我의 處境과 所결기 容納되지 않는 乖離된 狀況에서 읊어진 노래이다.

이와 같이 自我와 對象世界 혹은 運命과의 違和에서 읊어진 詩歌가 高麗以前에도 多數였다는 것을 알겠으며, 또 그것들은 지극히 抒寫의임도 알 수 있다.

Ⅲ.

高麗時代는 上下人民의 不和 뿐만 아니라 外敵의 侵犯으로 百姓들의 삶이 단 苛酷한 負擔만의 것으로 和合이란 처음부터 期待 밖의 것이었던지 모른다.

高麗 太祖는 巡省民風하고 補助不給해서 與民同樂했다. 그래서 百姓들이 그 德을 思慕해 오래도록 잊지 않고, 後王이 長湍에 노닐 때 聖祖의 德을 노래 불러 頌禱하며 規戒로 했다고 한다(長湍歌). 睿宗은 自己의 過誤나 時政得失을 듣고자 廣開言路하였으나 오히려 群臣들이 말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伐谷鳥》를 지어 諷諭했다고 한다. 이러한 君王들의 염려는 百姓들이 安樂하게 살도록 보살핌에 있었으나, 실제로 百姓들의 生活은 困逼하기만 했던 것 같다.

契丹의 聖宗이 開京에 侵入하여 宮闕을 불사른 뒤에 顯宗이 開京을 收復하여 羅城을 築造하니 國人이 기뻐해 부른 노래가 《金剛城》이라 하고, 行役者의 妻가 其夫의 돌아 오름 까치와 거미의 豫報로써 알고 부른 노래가 《居士戀》이라 한다. 苛斂誅求에 시달리던 百姓이 부른 風謠가 《沙里花》이며, 婦人이 以身事人하다가 一失其身하고 부른 노래가 《安東紫膏》이며, 唐裔에 其妻를 빼앗기고 悔恨을 못 이겨 부른 노래가 《禮成江》이라 한다. 權力構造 속에 參劄했다가 貶謫됨을 譏弄한 것이 《長巖》이며, 自怨해 부른 노래가 鄭瓜亭이다.

閔思平의 『小樂府』에는

再三珍重請蜘蛛 須越前街結網爲
得意背飛花上蝶 願令粘住省愆違

란 譯詩도 있다.

이들 詩歌는 하나 같이 自我의 意志와 所望이 對象世界와 違和하므로 해서 觸發된 情緒를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現在 作品이 傳하는 高麗詩歌들을 보면 이러한 違和의 狀況에서 불리어진 것들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違和를 造成한 힘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런 違和는 離別로 나타나고, 이 離別은 떠나가는 자와 보내는 자의 意志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外部로부터 強要된 것임에 틀림없다.

《西京別曲》에서는

어허므른 질삼의 버리시고
라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라 했으며, 大同江 兩岸으로 갈라 놓는 사공을 원망했다. 사공을 和合의 妨害者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 大同江은 離別의 場일 뿐만 아니라 隔離의 斷層으로 보인다. 그래서 鄭知常은 “大同江水何時盡”고 했으나 그 不可能을 “別淚年年添綠波”라 읊고 있다.

《가시리》역시 離別의 場에서 再和合을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離別의 場에서 노래하면서 “太平盛代”를 後斂으로 달고 있다. 이 詩歌의 意味構造 자체가 不調和的인 違和가 아닌가 생각된다.

鄭知常은 또 《送人》詩에서,

庭前一葉落 床下百蟲悲
忽忽不可止 悠悠何所之
片心山盡處 孤夢月明時
南浦春波綠 君休負後期

라 하나, 君은 “負後期”할 것을 豫見한 데서 읊은 것과 같다.

《鄭石歌》에서는 이런 違和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며, 그 表現은 象徴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와 “先王聖代에 노니와 지이다”는 그 表現의 撞着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삭삭기 세물애벌헤 구은밤 닳되를 심고이다. 그마미 우미노다 삭나거시아”하는 前提가 不可能한 것처럼 “先王聖代에 노니와 지이다”도 不可能한 것이며, 不可能을 前提로 한 所望은 所望이 아닌 것으로 “有德호신 님을 여히와 지이다”는 그 反對의 意志를 表出한 것이다. 이것은 《五冠山》에서

木頭雕作小唐雞 筋子拈來壁上棲
此鳥膠膠報時節 慈顏始似日平西

한 것과 같다. 그래서 《西京別曲》에서와 같이 “구스리 바회에 더신들 긴헛든 그츨리잇가 즘흔히롤 외오곰 너신들 믿잇둔 그츨리잇가”하고 “信”을 強調하고 있다.

《履霜曲》에서는 이 “信”을 “아소 님하 훈디 녀젓 期約이다”하여 “期約으로 強要하고 《滿殿春》에서도 “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힐솔 모릅새”하여 祈願하고 있다.

《滿殿春》은

어름우희 댓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리주글만덩
 어름우희 댓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리주글만덩
 情둔 오늬밤 더의 새오시라. 더의 새오시라.

하여 그 極限的인 祈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오늬밤”은 이미 지나간 “오늬밤”이지 결코 現在는 아닌 것이다. 이 句節은 和合의 파괴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和合에의 極端的인 志向이나, 그러면 그럴수록 現實的인 違和感은 더욱 強烈해진다.

對象世界만의 和合이 뚜렷이 認識될 때, 自我의 違和는 對照的으로 鮮明히 나타나고 對象世界와 같은 和合을 渴求하게 될 것이다.

耿耿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하니 桃花 發호도다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호는다. 笑春風호는다. (滿殿春 第二聯)

에서 “耿耿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는 그 이하의 部分과 그런 對照를 나타내 준다.

《滿殿春》의 第五聯

南山에 자리보와 玉山을 버어누어
 銷鑪山니불안해 麝香작시를 아나누어(反復)
 藥든 가슴을 맛초옵사이다. 맛초옵사이다.

는 和合에의 祈願을 나타낸 것이다.

《動動》의 十二月聯에서의 違和는 極히 鮮明한 比喻로 나타나 있다.

十二月入 분디남마로 갓곤 아으
 나슬盤잇 저 다호라.

6 嶺南語文學 (第7輯)

니의 알피 드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이것은 運命的 齟齬라 할 만하다. 이러한 運命的 齟齬는 《靑山別曲》에서,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로 읊은 “돌”로 比喻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리하여 결코 對象世界에 容納되지 못하는 自我는 靑山과 바다로 志向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安住하지 못하는 違和感을 느껴 마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흘림을 노래로 나타낸다. 그런데도 그 違和感을 세이게서마저도 느껴, 《愁城志》에서 愁城을 破하기 위하여 襄將軍(술)을 천거하여 襄將軍이 驅愁大將軍으로 出陣하는 것과 같이, 술을 擇하게 된다.

사실이지 高麗의 百姓들은 塗炭에 빠져 死竟을 헤매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기후가 고르지 못해
농가에선 모내기도 못하였네.
백성들은 모두 주립 속에 떨어져
서로 보매 얼굴빛 처량하여라.
금년봄도 또다시 가뭄들어
두손 잡고 흉년을 근심하네.
우물은 달라 푸른 진흙 되고
붉은 피처럼 아침해는 빛나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많고
뜰에는 뽕나무와 곡식이 틀어졌네.
(아하 즐임)

라는 崔瀼의 《三月二十三日雨》詩는 當時 死竟을 헤매이는 百姓들의 窮乏相을 如實히 表出해 주고 있다. 李齊賢도 《多景樓陪權一齋同古人韻同賦》에서 當時 牧民하는 官吏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佞臣謀國魚貪餌 黠吏憂民鳥糞羞”하는 奸巧한 臣下와 奸惡한 吏屬輩들이 謀國하고 憂民하

는 것은 정말 爲國衷情에서 나온 行爲가 아니고 고기와 새가 미끼를 탐하기 위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이러한 官僚의 支配를 받던 百姓들의 窮迫한 모습이야 想像하고도 남을 것이다. 李齊賢같은 臣子요 官僚였던 詩人이 이러한 表現을 했을 때, 實際 百姓들이 당했던 苛歛誅求의 苦痛이야 이루 形言할 수 없었을 것이다.

李穀의 《送漢陽鄭參軍》詩는 李穀이 官職에 있지 않을 때 鄭參軍을 漢陽으로 떠나 보내면서 그에게 別離의 情을 말할 뿐만 아니라, 塗炭에 빠져 있는 百姓을 救濟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처음부터 蕭條한 분위기를 보이다가 離別을 이야기하고, 百姓을 다스리러 가는 鄭參軍에게 당부한다. 百姓의 苦楚를 對照의 表現法을 써서 더욱 선명히 나타내 준다. “南江風雨亂漁火 北嶺烟霞明佛刹”의 어지러운 夜遊와 人間救濟를 위한 佛刹들의 뚜렷한 모습에 對照적으로 “所恨居民魚尾赤 籬落蕭條生事拙”이라 읊고 있다. 죽은 고기 꼬리처럼 붉게 말라 있는 百姓, 무너진 울타리 蕭條할 수 밖에 없는 拙한 삶, 이것이 바로 詩人의 恨이요, 그럴진대 百姓 當者들이야, 그래서 부탁이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위로하여 그 一瞥을 먼저 가시 실려 놓기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李穀이란 當代의 碩學이요, 文章家에 비친 世事의 艱難함이요, 百姓들의 所望을 代辯한 것이다.

李穀은 《紀行一首贈淸州參軍》의 詩도 썼다. 이것은 紀行詩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記錄한 그야말로 寫實의 詩다. 當時의 社會相, 百姓의 窮乏相을 그대로 그렸기에 爲政者들에게는 좋은 資料가 될 수 있는 風謠의 인 것이다. 그래서 李穀은 이것을 淸州參軍에게 주면서 座右銘으로 삼게 했다. “古人重劃一” 했는데 지금 사람은 變更을 좋아한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朝令暮改라는 말이 되겠다. 거기에 맞추어 가려는 百姓들은 정신이 없으리라. 게다가 무슨 놈의 法令이 그리 많아 쇠털(牛毛) 같은가. 이런 등살에 百姓들은 고기꼬리 같이 붉게 되었다(黔蒼魚尾類). 백성을 赤子와 같이 먹여 살리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赤子로 만들어 버리고 미는 것이다. 그는 “嗟嗟遠遊子 爾心好不平”이라 스스로 말했지만, 이는 그만의 不平이 아니다. 口腹을 위하여 “慣作東南行”했지만, 그가 보고 들은 일은 느껴 嘆息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十里 五里 사이로 놀랍게도 분분히 달려 가는 驛馬들, 마치 흐르는 별 같아 德音을 傳하기에 그리도 바쁜가 했더니, 빠진 집을 찾아내고, 불쌍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稅金을 徵收하려 하고, 山野를 베어 兼併하기 위한 行爲들이라, 百姓들은 문을 닫고 도망을 친다. 先王들

은 勤儉했고 四方을 비로소 경영할 때, 각각 境界가 있고, 租稅를 징수하는 데 規程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도 없고 규정도 없는가. 法은 百姓들에게만 있고 官僚들에게는 없는가. 모두가 徵求에만 血眼이 되어 있다. 때는 봄비 내린 뒤라 뼈속새는 울어 대는데, 발머리에 밤 함지 보이지 않으니 가을에 추수할 자인들 있겠는가. 황폐한 농촌의 情景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것은 天災가 아니고 官災임을 나타내 준다. 이것은 益齋의 《小樂府》中的

黃雀何方來去飛 一年農事曾不知
鰥翁獨自耕耘了 耗盡田中禾黍爲

보다 더한 表現이다. 이 《小樂府》에서는 鰥翁일망정 밭갈고 씨뿌려 김매기까지는 했다. 어디선가 黃雀이 날아와 田中禾黍를 다 나뉘어 채 갔지만. 그리하여 詩人은 산이나 사서 들어가 떠집이라도 짓고 洗心經이나 읽으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나 尺地라도 金穴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 사립작 달만한 곳도 없다. 밭갈이하는 백성을 볼 수 없을 만큼 황량한 山野지만, 이것들은 모두 大地主의 所有라 어디 한 곳 자리잡을 곳도 없다는 이야기다.

위와 같은 作品에 나타난 當時 百姓들의 生活相을 통해 볼 때 《靑山別曲》類들의 作品의 意味가 더욱 浮上되리라 생각된다.

IV.

『文心雕龍』의 《明詩》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舜云 詩言志 歌永言 聖謨所析 義已明矣. 是以在心爲志 發言爲詩 舒文載實 其在茲乎. 詩者持也. 持人情性. 三百之蔽 義歸無邪 持之爲訓 有符焉爾. 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 及大禹成功 九序惟歌* 太康敗德 五子咸怨 順美匡惡 其來久矣.

忠誠은 景德王을 위하여 《安民歌》를 지어,

君如臣多支民焉如 爲內戶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 [書, 大禹, 謨] 大禹曰 於帝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惟修 正德利用厚生 惟和 九功惟叙 九叙惟歌 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

[左氏, 文, 七] 六府三事 謂之九功.

하고 읊었으며, 信忠은 孝成王이 約束을 어기자 노래를 지어,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白史叱望阿乃 世理部 之叱逸
鳥隱第也,

하고 읊었다. 信忠은 違和感을 노래로 表出한 것이다. 이러한 違和의 詩는 新羅를 이어 高麗朝에 이름 모르는 詩人들에 의하여 多數 創作되어, 그것이 庶民大衆의 文學으로 享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景幾體歌라는 것이 支配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 享有되다가 朝鮮朝의 建國後에는 頌祝歌로서의 자리를 굳혔으나, 이런 違和感을 表出한 詩歌들은 朝鮮朝 士大夫들에 의하여 “男女相悅之詞” 또는 “淫詞”로 罵倒되었으나 소위 辭說詩調나 一部の 歌辭(歌詞)들에서 그 脈을 굳건히 이어 오고 있음은, 이들 違和의 詩가 眞率한 庶民感情을 表出하고 있으며, 또 우리 庶民詩歌의 主流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